

사순절 네번째 / 새가족 환영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sup>TH</sup> SUNDAY IN LENT

주후 2023년 3월 1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75 장 “주여 우리 무리를” (통일4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 번 시편 19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20:1-17</b>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찬양대
설 교 Sermon	<b>“도둑질하지 말라” (You Shall Not Steal)</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88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2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회개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

십자가는 우리가 한두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더 이상은 말로만 끝나는 형식적인 회개나,

생각에만 그치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7:2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도둑질하지 말라.” (개역개정, **출 20:15**)

“You shall not steal.” (NIV, **Exodus 20:1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19 (주일)	3/20 (월)	3/21 (화)	3/22 (수)	3/23 (목)	3/24 (금)	3/25 (토)
	출30	출31	출32	출33	출34	출35	출36
본문	요9	요10	요11	요12	요13	요14	요15
	잠6	잠7	잠8	잠9	잠10	잠11	잠12
	갈5	갈6	엡1	엡2	엡3	엡4	엡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22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5) - “예언서” (미68)
토요 새벽기도회 (3/25오전6:30)	“나는 믿었도다” (시116:1-19)

지난 주일(3/12)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9)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17)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간음하지 말라”)으로서, 이 말씀 역시 앞 에 나오는 (다른) 계명의 말씀들처럼,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의 처음 출발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 제5계명(“네 부모를 공경하라”)을 주셨고, 또한 (우리)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고 허(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곧 관계의 파국을 막는 핵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6계명(“살인하지 말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온전한 실천을 위해, 1)첫째,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성적) 유혹을 맞서기 보다는 피해야 하고, 2)둘째, 우리 안에 “음욕은 품기 보다는 버려야 하며, 3)셋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 “육체의 기회가 아닌 섬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전6:18)고 말씀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며, 또한 음행(간음)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은 (결코) 육체의 기회가 아닌, 섬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그리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